



세계주교시노드

2021

2023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 참 여 | 사 명

예비 문서

(Preparatory Document)



주교대의원회의

차례

제1장 함께 걸으라는 부르심 · 4

제2장 구성적으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 7

제3장 성경에 귀 기울이기 · 11

예수님, 군중, 사도들 · 11

회개의 두 배의 힘: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사도 10장) · 14

제4장 행동하는 시노달리타스: 하느님 백성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 · 16

근본 질문 · 16

시노달리타스의 다양한 구분 · 17

연구되어야 하는 열 가지 핵심 주제 · 19

자문을 구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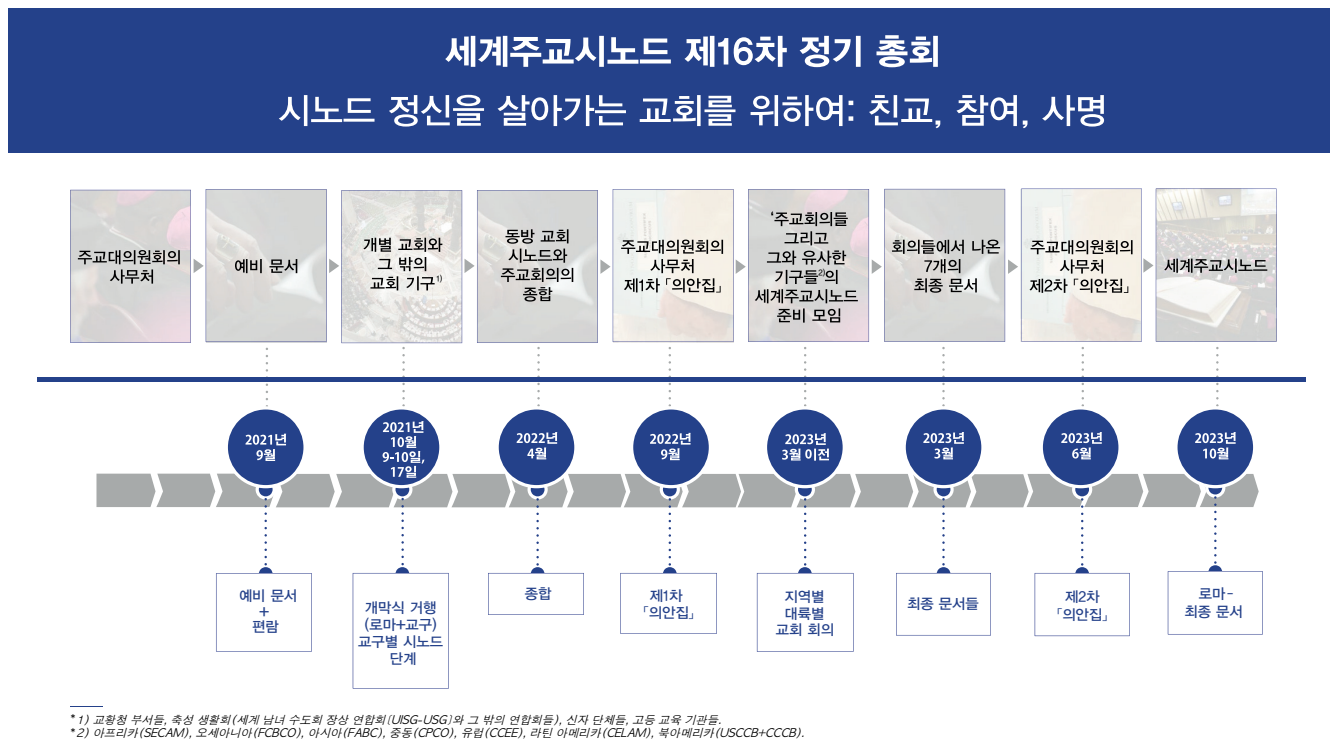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

1. 하느님의 교회는 시노드를 통하여 소집된다. 그 여정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2021년 10월 9-10일에 로마에서 장엄하게 개막되고 이어서 10월 17일에 모든 개별 교회에서도 개막될 것이다. 그 핵심 단계 가운데 하나인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 총회는 2023년 10월에 거행될 것이며,¹ 이어 각 개별 교회가 다시 한번 참여하는 이행 단계가 뒤따를 것이다(교황령 「주교들의 친교」[*Episcopalis Communio*], 제19-21조 참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번 세계주교시노드를 소집하심으로써, 교회의 삶과 사명에 결정적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관하여 성찰하도록 온 교회를 초대하신다.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여정이다.”²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교회 ‘쇄신’(aggiornamento)의 길을 따르는 이 여정은 하나의 선물인 동시에 과업이다. 곧 교회는 함께 걷기 그리고 걸어온 여정에 대해 함께 성찰하기를 통하여, 교회가 친교를 실천하고 참여를 실현하며 선교 사명에 자신을 여는 데에 어떤 과정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함으로써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우리의 ‘함께 걷기’는 순례하며 선교하는 하느님 백성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가장 잘 증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1. 시노드 여정은 다음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2. 프란치스코, 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015.10.17.



... 제삼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여정 ...

2. 근본 질문이 우리를 다그치고 이끈다. 오늘날 지역 차원부터 보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교회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 복음을 선포하게 해 주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로 자라나기 위하여 어떤 순서를 밟아 가도록 초대하시는가?

이 질문에 함께 응답하려면, 불고 싶은 데로 부는 바람과 같으신 성령께 귀 기울이고 우리의 여정을 위하여 성령께서 분명히 예비해 놓으실 경이로움에 열려 있어야 한다. “바람은 불고 싶은 데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요한 3,8).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무르익어 갈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변화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들이도록 하는 역동성이 활성화된다. 이 열매들은 교회 생활의 질적 측면을 위하여, 그리고 세례와 견진 성사에 힘입어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복음화 사명 수행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목표들이다. 이 문서에서 우리는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의 형태와 형식과 구조에만 한정하여 주요 목표들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성령께서 역사 안에서 교회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또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다 함께 증언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되새겨 보기.
- 모든 이가, 특히 다양한 이유로 소외된 이들이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표현하고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받는 참여적이고 포괄적인 교회적 과정을 실천하기.
- 성령께서 공동체의 선익과 온 인류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자유롭게 부어 주시는 은총과 은사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인식하고 감사하기.
- 복음을 선포하고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하고자 노력할 책임 수행의 참여 방식들을 탐구하기.
-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자신이 운영하는 조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복음에 뿌리내리지 않은 왜곡된 관행과 편견을 드러내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기.

-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사회적 대화, 치유, 화해, 포용과 참여, 민주주의 재건,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 증진의 과정에서 믿음직한 주체이자 신용 있는 동반자로 여겨지도록 신뢰감 쌓기.
-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물론, 다른 사회단체와 공동체들, 예를 들어 다른 교파와 타 종교 신자 공동체, 시민 사회 단체, 대중 운동 간의 관계 되살리기.
- 보편, 지역, 국가, 개별 차원에서 최근에 거둔 시노드 체험의 결실들의 인식과 활용을 증진하기.

3. 이 「예비 문서」(Preparatory Document)는 특히 개별 교회들 안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귀 기울이고 자문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2021년 10월 - 2022년 4월)를 증진하는 도구로서 시노드 여정에 봉사한다. 이 여정에 참여할 모든 이의 생각과 힘과 창의성이 약동하고 그들 노력의 결실이 더욱 잘 공유되도록 이 「예비 문서」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여정은 다음과 같다. 1) 현 상황의 주요 특징들에 대한 개요로 시작한다. 2) 시노달리타스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위하여 근본적인 신학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밝힌다. 3) 여정을 이어 나가는 데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찰하도록 북돋워 줄 수 있는 몇 가지 성경 요점들을 제시한다. 4) 실천된 시노달리타스의 체험들을 되짚어 보게 하는 몇몇 관점을 조명한다. 5) 기도와 나눔 안에서 이 체험들을 되짚어 보는 작업을 명확히 하는 몇 가지 방식을 제시한다. 이 작업의 구성에 구체적으로 동반하고자 방법론적 안내서인 「편람」(Vademecum)을 제시하며 이 「예비 문서」에 첨부한다.

「편람」은 주교대의원회의의 웹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³

이 「예비 문서」를 뒷받침하며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의 심화를 위한 다른 자료들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한다. 이 자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몇 차례 언급해 왔던 다음 두 문서를 강조하고자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주교대의원회의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2015.10.17.) 그리고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의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La Sinodalità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2018)가 그것이다.



3. www.synod.va 참조.

제1장 함께 걸으라는 부르심

4. 시노드 여정은 사회의 시대적 변천과 교회 생활의 결정적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펼쳐진다. 바로 이러한 상황의 복합성이 겹치는 가운데 그 긴장과 모순 안에서 우리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사목 헌장 4항)하도록 부름받는 것이다. 이 문서에서는 세계주교시노드의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제적 배경을 지닌 요소들도 일부 개괄하겠지만 그 전체 그림은 지역 차원에서 풍요로워지고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5.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같은 전 세계적 비극은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세계 공동체라는 인식을 삼시간에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다. 그 배 안에서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된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회칙 「모든 형제들」[*Fratelli Tutti*], 32항). 또한 이 세계적 유행으로 기존의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대중화와 파편화의 과정으로 인류는 점점 더 요동치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 각지에서 이주민이 직면한 비극적 상황은 한 인류 가족을 갈라놓는 장벽이 여전히 얼마나 높고 견고하게 존재하는지 보여 준다.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와 「모든 형제들」은 인류 전반에 퍼져 있는 과오들의 심각성을 조목조목 제시한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기준으로 삼아, 가난한 이들과 땅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심어 주고 계시는 희망의 씨앗, 미래의 씨앗을 인식할 수 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 창조주께서는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데에 협력할 능력이 있다”(「찬미받으소서」, 13항).

6. 온 인류가 커다란 차이를 지녔음에도 하나 되게 해 주는 이 상황은, 수많은 거짓 안전의 가림막을 벗겨 낸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되짚어 보고 창조주의 선하심과 그분 피조물의 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기르는 개인과 공동체를 동반하는 교회의 능력에 도전 과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자신이 믿음 부족은 물론 내부의 부패에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할 수 없다. 특히 “상당수의 성직자들과 축성된 이들의 성적 학대, 권력 남용, 양심을 저버린 행위”⁴ 미성년자와 힘없는 사람들이 겪은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육체적 영적 상처를 입은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책임져야 할 과제를 지닌다.”⁵ 교회는 너무도 오랫동안

4. 프란치스코,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 2018.8.20.,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59호(2019),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8면.

피해자들의 울음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해 왔다. 이는 여전히 치유가 어려운 깊은 상처로 남았고 아무리 용서를 빈다 해도 미흡한 것으로, ‘함께 걷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때로는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교회 전체는 역사상 대물림된 성직주의, 그리고 권력, 경제, 양심, 성 등 온갖 형태의 남용이나 학대와 결부된 권위 행사의 형태가 스며든 문화라는 교회가 짊어진 무게를 숙고해 보라고 부름받는다.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교회로서 우리의 행동 변화는”⁶ 결코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학대의 범죄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하고 용감하게 그 범죄들과 싸울 결심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도우해 주시도록”⁷ 다 함께 주님께 청하도록 하자.

... 교회 전체는 역사상 대물림된 성직주의, 그리고 권력, 경제, 양심, 성 등 온갖 형태의 남용이나 학대와 결부된 권위 행사의 형태가 스며든 문화라는 교회가 짊어진 무게를 숙고해 보라고 부름받는다 ...

7. 성령께서는 우리가 충실하지 못할지라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 하시며 생명을 불어넣는 당신의 권능을 보여 주신다. 인류 가족과 하느님 백성이 감내하고 있는 온갖 고통으로 깊게 파인 고랑에서 바로 신앙의 새로운 표현과 길이 자라난다. 온갖 사건들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길과 교회 생활의 길을 재건할 근거들을 시련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적지 않은 교회가 이미 하느님 백성의 모임과 자문의 과정을 시작하였다는 데에서 큰 희망이 솟아난다. 시노드 방식이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 왔던 곳에서는 교회의 감각이 일깨워지고 모든 이의 참여가 교회의 삶에 새로운 자극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 주역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열망과, 여성의 가치를 드높이고 교회 사명에 참여할 자리를 달라는 여성들의 요청이 2018년과 2019년에 열린 세계주교시노드 총회에서 이미 명확히 드러났고 또 확인되었다. 최근에 평신도 교리 교사 직무를 제정하고 독서직과 시종직에 여성을 허용하도록 개방한 것 또한 같은 선상에서 나타난 변화이다.

5.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 2항.

6.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 2항.

7. 하느님 백성에게 보내는 서한, 2항.

8.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놓인 조건의 다양성을 무시할 수 없다. 교회가 인구 다수를 차지하고 사회 전체의 문화적 준거점이 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가톨릭 신자들이 소수인 나라들도 있다. 그 가운데 몇몇 나라에서는 가톨릭 신자들도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온갖 박해를 겪고, 심지어 폭력에 시달리다 순교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한편에서는 공공의 부문에서 종교를 몰아내곤 하는 세속화된 사고방식이 지배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종교 근본주의가 타인의 종교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온갖 형태의 무관용과 폭력을 부추기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사회와 이루는 관계 안에서도 그러한 무관용과 폭력이 반영되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지닌 경우도 드물지 않아,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적대 관계를 조장하기도 한다. 사회를 휘젓고 있는 민족, 인종, 계급 또는 기타 사회 계층, 온갖 문화적 구조적 폭력 때문에 빚어진 불화가 그리스도교 공동체 전체에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사회와 이루는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마찬가지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함께 걷기’의 의미에 또 그 구체적 실천 가능성에 깊은 타격을 입혀 왔다.

9. 이러한 맥락 안에서 시노달리타스는 성령의 활동에 따라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신을 쇄신하도록 부름받는 교회를 위한 주된 길이다. 교회가 받은 사명에 맞게 교회와 그 제도들을 위한 또 다른 미래를 상상하는 힘은 경청, 대화, 공동 식별의 과정들을 시작하려는 결정에서 대개 영향을 받는다. 모든 이가 저마다 이러한 단계들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함께 걷기’에 대한 결정은 인류 가족을 위한 예언적 표징으로, 모든 이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의 계획을 필요로 한다. 자신이 선포하는 것에 충실하면서 친교와 형제애, 참여와 보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 가장 작은 이들 곁에 자리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함께 걷기’ 위하여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 참다운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 또한 용감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변화의 과정들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들은 교회가 “인간적인 지상 제도로서 언제나 필요한 이 개혁을 끊임없이 계속”(일치 교령 6항; 참조: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6항)해 나가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 우리는 ‘함께 걷기’ 위하여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 참다운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사고방식을 배워야 한다.
또한 용감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변화의 과정들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2장 구성적으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10. “하느님께서 제삼천년기의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시노달리타스의 여정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노드’라는 단어 안에 이미 모두 담겨 있다.”⁸ 시노드라는 이 단어는 “교회의 거룩한 전승 안에서 사용되어 온, 오래되고 존중되어야 할 단어이다. 그 의미는 계시의 더 깊은 내용들과 관련되어 있다.”⁹ 이는 “당신 자신이 ‘길ियो 진리요 생명’ (요한 14,6)이라고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이며 또한 “본디부터 그분의 뒤를 따라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라고 불리던 그리스도인들”(사도 9,2; 19,9.23; 22,4; 24,14.22 참조)¹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노달리타스는 교회 모임과 주교들의 회의 거행 또는 그저 교회 내부 운영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의 생활 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의 고유한 특성을 가리킨다. 교회는 함께 걸어가는 데에서, 회중의 모임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데에서 자신이 친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현한다.”¹¹ 따라서 주교대의원회의가 제시하는 제목에는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지탱하는 주축들인 친교, 참여, 사명이 한데 어우러져 엮여 있다. 제2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의 기초가 되는 몇 가지 근본적인 신학 기준을 종합적으로 조명해 본다.

11. 제일천년기에 ‘함께 걷기’, 곧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 안에 모인 백성”¹²으로 이해된 교회가 행동하는 통상적인 방식이었다. 교회의 교부들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극한 일치를 이루는 신앙의 일치”(concordissima fidei conspiratio)¹³, 다시 말해 세례 받은 모든 이의 신앙의 일치라고 묘사하였던,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들의 친교로써, 교회의 몸을 분열시키던 자들에게 맞섰다. 보편 공의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교회 생활의 모든 차원, 곧 지역, 관구, 보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실천의 폭넓은 발전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 생활에 대한 모든 이의 참여라는 원칙에서 영감을 얻은 바로 이러한 교회적 지평 안에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교회와 시노드는 동의어이다.”¹⁴ 하고 말할 수 있었다.

8. 주교대의원회의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9.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La Sinodalità nella Vita e nella Missione della Chiesa*), 2018.3.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0(제1판), 3항.

1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3항.

1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항.

12. 성 치프리아노, 「주님의 기도」(*De Oratione Dominica*), 23, 「라틴 교부 총서」(*Patrologia Latina: PL*), 4,553.

13. 성 아우구스티노, 「서간집」(*Epistola*), 194,31, *PL* 33,885.

14.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시편 강해」(*Explicatio in Psalmum*) 149, 「그리스 교부 총서」(*Patrologia Graeca: PG*), 55,493.

교회가 교계의 역할을 대단히 강조하였던 때인 제이천년기에도 이와 같은 진행 방식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곧 교의적 진리를 규정하는 때에 교구 시노드와 관구 시노드의 거행이 보편 공의회와 더불어 좋은 증거가 되었던 한편, 교황님들께서는 온 교회의 믿음을 인식하고자 주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믿음에서**(in credendo) 오류가 없는”(『복음의 기쁨』, 119항) 하느님 백성 전체의 신앙 감각(sensus fidei)의 권위에 호소하기를 바라셨다.

... “교회와 시노드는 동의어이다.” ...

12.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승의 이러한 역동성에 굳건한 토대를 두고 있다.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교회 헌장 9항).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지체들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하나가 된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남을 위하여 교사나 신비 관리자나 목자로 세워졌지만,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통된 품위와 활동에서는 참으로 모두 평등하다”(교회 헌장 32항).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는 세례 받은 모든 이는 “다양한 형태로 행사되는 …… 그들의 은사와 소명, 직무의 질서 있는 풍요로움”¹⁵을 통하여 개인으로도 하느님 백성 전체로도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

13. 공의회는, 세례 때에 받은 성령의 도유에 힘입어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 **하느님 백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역학이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15.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항.

중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교회 현장 12항)라고 강조하였다. 바로 성령께서 신자들을 “모든 진리”(요한 16,13)로 이끌어 주신다. “사도들에게서 이어 오는 이 성전(聖傳)”은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발전한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백성은 “마음 깊이 그것을 새겨 간직하는(루카 2,19.51 참조) 신자들의 명상과 공부로써,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식을 통해 쌓이는 경험으로써, 그리고 주교직 계승을 통해 확고한 진리의 은사를 받은 이들의 설교로써 증진”되는 “전해진 것들과 말씀들에 대한 이해”(계시 현장 8항)로 성장할 수 있다. 사실 목자들이 모은 백성은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거룩한 유산에 충실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형제적 친교를 맺으며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항구히 전념하여 “전해진 신앙을 고수하고, 실행하며 고백하면서 주교들과 신자들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계시 현장 10항).

...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출발’하는 교회”, 곧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선교하는 교회이다 ...

14. 하느님께서 “온 교회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수호자이고 해석자이며 증인으로서”¹⁶ 세우신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 떼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 백성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역학이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시노드 과정에 대한 참여의 바탕에는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라는 공동 사명에 대한 공유된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는 “교계적으로 구조화된 공동체 안에서”¹⁷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적 과정이다. 같은 믿음을 나누는 온 교회가 만장일치로 이루는 동의는, 바로 하느님 백성의 신앙 감각과 목자들의 가르치는 역할 사이의 효과적인 유대를 통하여 실현된다. 모든 시노드 과정에서 주교들은 자기 혼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도 참여”(교회 현장 12항)하는 하느님 백성에게 귀 기울임으로써 성령께서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식별하도록 부름받는다. 이 모든 시노드 과정은 교회가 성장하도록 만드는 ‘함께 걷기’의 분명한 방식이다. 베네딕토 성인은,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 경우, 가장 어린 사람들에)에게 얼마나 “자주 주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가장 현명한 길을

16. 주교대의원회의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1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9항.

밝혀 주시는지”¹⁸ 강조한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모든 이에게 다가가고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차근차근 시노드 여정을 전개해 나가면서 바오로 사도가 공동체들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하십시오”(1테살 5,19-21).

15. 우리가 부름받은 여정은 무엇보다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과 형식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배우는 것이 있다. 신앙을 가진 백성, 주교단, 로마 주교, 각각자는 다른 이들을 경청하고, 모든 이는 성령, 곧 ‘진리의 영’(요한 14,17)을 경청하여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묵시 2,7)을 알게 된다.”¹⁹ 교회 일치에 근원이며 토대인 로마 주교는 모든 주교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그로부터 유일 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개별 교회가(교회 헌장 23항 참조) 확신을 지니고 과감하게 시노달리타스의 길을 시작하라고 요청하신다. 이 ‘함께 걷기’에서 우리는, 일치 안에서 다양한 은총과 은사와 직무를 한데 모으는 친교가 어떻게 사명을 위한 것인지를 발견하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출발’하는 교회”, 곧 “문을 활짝 열어 놓은”(「복음의 기쁨」, 46항) 선교하는 교회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세례로 일치하는 다른 교회들과 그리스도교 공동체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요청도 포함된다. 그러면 ‘함께 걷기’에 대한 관점은 더욱 넓어지고, 모든 인류를 품어 안으며 그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사목 헌장 1항)를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된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특히 모든 이의 선의 추구의 방법이 되는 공동 계획을 제안할 수 없는 나라들의 공동체를 위한 예언적 징표이다. 시노달리타스를 실천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구원의 보편 성사”(교회 헌장 48항), 곧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며 도구”(교회 헌장 1항)가 되도록 하는 가장 분명한 길이다.



18. 성 베네딕토, 「규칙서」(Regula Benedicti), 제3장, 3항.

19. 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제3장 성경에 귀 기울이기

16. 교회의 이 ‘함께 걷기’ 여정에 빛을 밝히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사명에서 활동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시며, 사도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모든 시대의 제자들에게 약속된 바로 그 성령이시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히 이어지도록 하시는 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계시의 늘 새로운 깊이를 밝혀 주시고 교회의 여정을 지탱하는 데에 필요한 결정들을 내리도록 감도하실 것이다(요한 14,25-26; 15,26-27; 16,12-15 참조). 그렇기에 우리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 ‘표상’에서 영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표상은 복음화 여정에 계속 동반되는 ‘공동체 모습’이다. 두 번째 표상은 베드로와 초기 공동체가 신앙을 전파하는 데에 부당한 한계에 놓이는 위기를 인식하는 때의 성령 체험이다. 함께 걷기라는 시노드 체험은, 주님을 따르고 성령에 순종하며 계시의 이러한 두 가지 특징에 관한 묵상에서 결정적인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군중, 사도들

17. 그 기본적인 틀 안에서 원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오심을 선포하시면서 복음 전반에 걸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의 일관성으로 나타난다. 본질적으로 세 명의 행위자(그리고 한 명 추가)가 관련되어 있다. 당연히 첫 번째 행위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시는 일 없는’(사도 10,34 참조) 하느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말씀과 표징의 씨앗을 뿌리시며 주도권을 갖고 계신 확실한 주역이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에게서 ‘멀어진 이들’과,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이들’(복음 표현으로 죄인과 가난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부의 이름과 성령의 힘 안에서 당신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주님의 부르심도 그에 대한 응답도 다양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들의 청원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에 도움을 주며, 유용성을 인정하고, 하느님의 눈길로 그들의 존엄을 확인하여 공동체가 다시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18. 사실 복음화 활동과 구원 메시지는 최대한 많은 청중을 향한 예수님의 한결같이 열린 마음이 없다면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복음서들은 이 청중을

군중, 곧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때로는 심지어 구원의 표징과 말씀을 기대하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라고 말한다. 이는 계시의 장면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행위자이다. 복음 선포는 계몽된 또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대화 상대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곧 인간이라는 조건을 지닌 ‘모든 이’이며,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의 부르심을 직접 접하게 하신다. 목격자들을 놀라게 하고 때로는 경악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군중 가운데에 있는 모든 이를 대화 상대로 받아들이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가져다주실 은총에서 제외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나안 여자의 간절한 요청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마태 15,21-28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상종할 수 없는 신분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다(요한 4,1-42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공인된 종교가 은총 밖에 있는 사람으로 치부한 눈먼 사람의 자유롭고 감사하는 믿음의 행동을 바라신다(요한 9장 참조).

... 복음 선포는 계몽된
또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대화 상대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곧 인간이라는 조건을 지닌
‘모든 이’이며 ...

19. 일부는 제자직의 충실함을 체험하며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르지만, 다른 이들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요청받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자신을 구원한 신앙의 힘을 증언한다(마태 15,28 참조).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직접 부르신 이들인 사도들의 모습은, 군중이 계시와 하느님 나라의 오심과 맺는 관계를 권위 있게 중재하는 임무를 받았기에 명백하게 중요해진다. 여기에서 세 번째 행위자가 치유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등장한다. 사도들로 뽑혔다는 것은 배타적인 권력을 누리며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특권이 아니라 축복과 우애라는 포용하는 직무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은총으로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리를 지킨다. 예수님의 현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도들로 뽑혔다는 것은 배타적인 권력을 누리고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특권이 아니라 축복과 우애라는 포용하는 직무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

20. 예수님과 다양한 군중과 사도들, 이 세 행위자는 꾸준히 성장하고 깊이 탐구해야 하는 표상이며 신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교회다워질 것이다. 이 세 행위자 가운데 그 누구도 장면 밖으로 사라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그분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교회는 사도들과 군중 사이 하나의 계약이 되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정치 게임의 전략을 따르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 권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도들이 없다면, 복음의 진리와 맺은 관계는 깨지고, 군중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여전히 그분에 대한 신화나 이념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다. 군중이 없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계는 종교의 종파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형태로 부패하고, 하느님께서 당신 구원을 주시면서 친히 모든 이에게 직접 당신을 계시하는 데에서 나오는 복음화는 그 빛을 잃을 것이다.

... 분열시켜 결국 좌절시켜 버리는 함정은 종교적인 엄격함 ... 윤리적 명령 ... 세속적인 정치적 유혹의 형태로 태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

21. 그리고 이 세 행위자를 악의적으로 갈라놓는 적대자인 ‘추가’ 행위자가 있다. 십자가의 혼란스러운 앞날을 직면하게 되어 떠나는 제자들과 마음이 변한 군중이다. 공동의 길을 분열시켜 결국 좌절시켜 버리는 함정은 종교적인 엄격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윤리적 명령, 그리고 영의 식별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세속적인 정치적 지혜라는 유혹의 형태로 태연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네 번째 행위자’의 기만을 피하려면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코르넬리우스 백인대장의 이야기(사도 10장 참조), 예루살렘에서 열린 사도 회의의 선행 사건(사도 15장 참조)은 상징적이며,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중요한 증거점이다.

회개의 두 배의 힘: 베드로와 코르넬리우스(사도 10장)

22. 먼저 이야기는 일종의 예고를 받은 코르넬리우스의 회개를 이야기한다. 코르넬리우스는 로마인으로 추정되는 이교도로, 폭력과 학대를 하는 점령군의 하위 장교인 백인대장이다. 그러나 코르넬리우스는 열심히 기도하며 자선을 베푼다. 다시 말해 그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일구어 나가며 자신의 이웃들을 돌본다. 바로 그가 있는 곳으로 갑자기 천사가 들어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보내다’는 파견의 동사형이다!), 베드로를 데려오게(‘데려오다’는 부르심의 동사형이다!)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회개 이야기가 이어진다. 같은 날 베드로는 환시를 보게 되고,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듣는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사도 10,14). 베드로는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한다. 이는 그러한 명령이,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고 그들을 배제시키는 차이로 뿔뿔히 이해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에 없어서는 안 될 토라(Torah)의 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고,
뿔뿔한 이들이라는 사실로
만들어진 차이는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봉사
증언을 의미한다 ...**

23. 베드로 사도가 깊은 혼란에 빠져,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이 당신께서 보낸 이들이라고 말씀하신다. 베드로는, 정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로 그들에게 대답한다.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는 사람입니다”(사도 10,21). 이는 참되고 올바른 회개이고, 자신의 문화와 종교 범주에서 벗어나는 괴롭지만 대단히 유익한 과정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늘 금기시하던 음식을 이교도들과 함께 먹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느님과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삶과 친교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베드로는 바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걷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이 본 환시의 의미를 깨닫는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그 누구도 하찮은 사람이 없고, 뽀힌 이들이라는 사실로 만들어진 차이는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보편적인 봉사과 증언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24. 코르넬리우스와 베드로는 모두 자신들의 회개 과정에 다른 이들을 포함시켜 그 여정의 동행자가 되도록 한다. 사도직 행동은 공동체를 만들고 장벽을 허물며 만남을 증진하여 하느님의 뜻을 실현한다. 두 주역들의 만남에서 말씀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르넬리우스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한다. 베드로는 코르넬리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말한다. 이어서, 두루 다니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을 악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인류를 짓누르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께서(사도 10,38 참조)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증언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성령의 충만함이 내린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전통 규범에만 집중하는 할례 받은 이들이 “당신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사도 11,3)라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비난할 때 그가 사용할 방식과 비슷하다. 이러한 갈등의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고, 그때 자신은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거절하였다고 말한다. 바로 이 방식이 처음에는 공격적이고 거칠었던 대화 상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예루살렘의 ‘사도 회의’에서도 그러할 것처럼, 성령의 말씀에 다 함께 귀 기울이는 식별의 과정에서 성경은 그 의미를 해석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제4장 행동하는 시노달리타스: 하느님 백성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

25. 시노드 여정은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전승에 기반을 두며 하느님 백성의 구체적인 삶에 뿌리내리고 있다. 사실 이 여정이 보여주는 특별함은 놀라운 자원이기도 하다. 바로 시노달리타스라는 목적이 그 방법도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노달리타스는 점진적인 시노드 정신을 따르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역동성의 열매를 곧바로 수확하게 해 줄 수 있는 일종의 건축 부지나 시범 체험이다. 다른 한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그리고 다양한 강도로 실천된 시노달리타스의 체험이다. 곧 그 체험의 강점과 성취, 그 한계와 어려움은 계속해서 나아갈 방향을 식별하는 데에 귀중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물론 여기에서는 현재의 시노드 여정으로 활성화된 체험만이 아니라, 시노달리타스라는 용어를 알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미 ‘함께 걷기’의 형태를 맛보고 있는 모든 체험도 언급된다.

근본 질문

26.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하느님 백성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이끄는 근본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걷는다’. 오늘날 여러분의 개별 교회에서는 이 ‘함께 걷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걷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순서들을 밟도록 초대하시는가?

이에 응답하려면 다음 사항들이 요청된다.

- ㄱ) 근본 질문이 개별 교회의 어떤 체험을 떠올리게 하는지 스스로 묻는다.
- ㄴ) 이러한 체험을 더욱 깊이 있게 되짚어 본다. 체험을 통하여 어떤 기쁨을 얻었는가? 어떤 어려움과 장애를 맞닥뜨렸는가? 어떤 상처가 드러났는가? 어떤 통찰을 끌어내었는가?
- ㄷ) 공유할 결실들을 모은다. 이러한 체험 속에서 성령의 소리가 울려 퍼진 곳은 어디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확인 사항들과 변화 가능성과 진행 순서들은 무엇인가? 어떻게 동의를 표명하는가? 개별 교회를 위하여 어떤 길들이 열리고 있는가?

시노달리타스의 다양한 구분

27. 기도와 성찰과 근본 질문으로 시작된 나눔을 통하여, “교회의 구성적 차원”²⁰으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시노달리타스의 세 가지 차원을 기억하는 것이 적절하다.

- 교회의 삶과 사명을 특징지으며, 함께 걸어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주 예수님께서 소집하신 회중으로 모이는 하느님 백성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원. 이 방식은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을 거행하는 것, 친교의 형제애를 이루는 것,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직무와 역할을 구별하며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고 공동 책임을 지는 것”²¹으로 실현된다.
- 신학적 교회법적 관점에서 정해진 교회 구조들과 과정들의 차원. 교회의 시노드적 본질은 이 교회 구조와 절차 안에서 개별 교회 차원, 지역 교회 차원, 보편 교회 차원에서 제도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 교회 규율로 정해진 특정 절차에 따라 관할 권위로 교회가 소집되는 시노드 사건들과 과정들의 차원.

시노달리타스의 이 세 차원은, 논리적 관점에서는 다를지라도,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일관된 방식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상반된 증언이 전달되고 교회의 신뢰가 떨어진다. 사실 시노달리타스의 방식은 구조와 절차들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 의도와 바람이 말뿐인 것으로 쉽게 평가절하될 수 있다. 그리고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과정들과 사건들은 공허한 형식이 되어 버린다.

28. 더 나아가 체험들을 되짚어 보면서 ‘함께 걷기’가 서로 단단히 연결된 두 개의 다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관점은 개별 교회들의 내적인 삶과 구성원들(무엇보다도 교구 시노드를 포함하여 교회법적 규율에 따라 규정된 참여 기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신자와 목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이 구분되어 속해 있는 공동체들(특히 본당들)을 살핀다. 그리고 나서 주교들 사이의 관계, 로마 주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데, 시노달리타스의 중간 기구들, 국가별, 국가 간, 대륙 간에 이루어지는 총대주교구와 상급 대교구좌

2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70항.

2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70항.

교회들의 주교 시노드, 자치 교회의 주교 평의회와 주교 총회, 주교회의들을 통한다. 그리고 각 개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수도와 축성 생활, 평신도 협의회와 운동, 다양한 분야의 교회 기관들(학교, 병원, 대학교, 재단, 자선과 원조 기구 등)을 통합하는 방식에까지 범위를 넓힌다. 마지막으로, 이 관점은 우리와 같은 세례성사의 은총을 나누는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의 형제자매들과 이루는 관계와 공동 계획들까지도 포용한다.

29. 두 번째 관점은 하느님 백성이 어떻게 온 인류 가족과 함께 걸어갈 것인지를 고려한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대화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자들, 신앙에서 멀어진 이들, 특정 사회 환경이나 집단에 속해 있는 이들 그리고 그 기관들(정치, 문화, 경제, 금융, 노동, 노동조합, 기업 협회, 비정부 기구, 시민 사회 기구, 대중 운동, 다양한 약자,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 등)과의 잠재적 공동 계획 등의 상태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연구되어야 하는 열 가지 핵심 주제

30. 경험을 강조하고 자문을 구하는 데에 더 풍성히 기여하도록 돕고자 우리는 ‘실천된 시노달리타스’의 서로 다른 측면들을 명확히 하는 열 가지 핵심 주제를 아래에 제시한다. 각 지역의 맥락에 따라 이 주제들을 적용해야 하고, 때에 따라 통합하고, 설명하고, 간소화하고, 심화해야 하며, 참여와 응답에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예비 문서」와 함께 준비된 「편람」에 수단, 일정, 제안이 제공되기에 다양한 질문들이 기도, 양성, 성찰, 나눔의 순간들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가.

가. 여정의 동반자

교회와 사회 안에서 우리는 나란히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지역 교회 안에서 ‘함께 걷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에 속한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요청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교회의 범주 바깥에 있는 이들을 포함하여 여정의 동반자들은 누구인가? 분명하게 또는 실제로, 어떤 단체나 개인들이 소외된 채 남아 있는가?

나.

나. 경청

경청은 첫 번째 순서이지만, 편견 없이 열린 정신과 마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개별 교회가 ‘경청해야 할’ 이는 누구인가? 평신도, 특히 젊은이와 여성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하는가? 남녀 축성 생활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소수자들, 버림받은 이들,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어떤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가? 우리의 귀를 막는 편견과 고정 관념을 인식하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어떻게 귀 기울이고 있는가?

다.

다. 발언

모든 이가 용기와 담대함(파레시아)으로 발언하도록 초대되며, 이를 통하여 자유, 진리, 사랑이 어우러진다. 공동체와 그 단체 안에서 표리부동과 기회주의를 피하여 자유롭게 진정한 소통의 방식을 어떻게 장려하는가? 우리가 속한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말하게 되는가? 가톨릭 매체뿐만 아니라 미디어계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대표하여 발언하는 이는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선발되는가?

라.

라. 거행

‘함께 걷기’는 공동체가 말씀을 경청하고 성찬례를 거행하는 데에 기반을 둘 때에만 가능하다. 기도와 전례 거행이 어떻게 우리의 ‘함께 걷기’에 영감을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가? 기도와 전례 거행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에 어떻게 영감을 주는가? 모든 신자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와 성화하는 역할의 수행을 어떻게 촉진하는가? 독서직과 시종직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어떤 자리가 마련되는가?

마.

마. 사명 안에서의 공동 책임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사명에 대한 봉사이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이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다. 우리는 모두 선교하는 제자들이다. 그런데 세례 받은 모든 이는 어떻게 그 사명의 주체가 되라고 부름받는가? 공동체는 사회와 정치 참여, 학술 연구, 교육, 사회 정의 증진, 인권 보호, 공동의 집 돌봄 등 사회에 봉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들이 선교적 방식으로 이러한 임무를 살아가도록 여러분은 어떻게 돕는가? 선교와 관련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식별하며, 그 식별에 누가 참여하는가? 많은 교회의 유산, 특히 동방 교회들의 유산들이 이루고 있는 다른 전통들이 효과적인 그리스도교 증언의 시각에서 시노드 방식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변화되는가? 다른 자치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협력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

바. 교회와 사회 안에서의 대화

대화는 침묵과 고통도 포함하는 인내의 길이지만, 개인과 민족들의 경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길이다. 개별 교회 안에서 대화의 자리와 방식은 무엇인가? 시각의 차이, 갈등, 어려움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이웃 교구들과 지역 내 수도 공동체, 평신도 협의회와 운동 등과의 협력을 어떻게 촉진하는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과 종교가 없는 이들과 우리는 어떤 대화와 협력을 체험하였는가? 교회는 다른 부문, 곧 정치, 경제, 문화, 시민 사회 분야, 가난한 이들 등과 어떻게 대화하며 어떻게 배우는가?

사.

사.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과 함께

하나의 세례 안에서 일치하지만 다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대화는 시노드 여정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의 형제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가 배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 이 ‘함께 걷기’에서 얻은 결실은 무엇인가? 어려움은 무엇인가?

아.

아. 권위와 참여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는 참여적이고 공동 책임을 지는 교회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밭아 나가야 할 순서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개별 교회 안에서 권위는 어떻게 행사되는가? 협동 작업과 공동 책임의 실천은 무엇인가? 평신도 직무와 신자들이 맡은 책임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개별 교회 차원의 시노드 기구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풍요로운 체험이 되고 있는가?

자.

자. 식별과 결정

시노드 방식에서는 성령께 모두 함께 순종하는 데에서 흘러나오는 동의에 기반을 둔 식별로 결정을 내린다.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우리는 함께 식별하고 결정하는가?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교계 구조를 지닌 공동체 안에서 의사 결정의 참여를 어떻게 증진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자문의 단계가 숙고의 단계로 이어지고 의사 결정 과정이 결정의 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가? 우리는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투명성과 책임감을 증진하는가?

차.

차. 시노달리타스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양성

함께 걷는 여정의 영성은 인간 개인의 양성과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의 양성을 위한 교육 원리라고 불린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은 이들이 서로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걷기’를 위한 역량을 기르도록 양성하는가? 식별과 권위의 행사를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양성을 하는가?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문화의 역동과 우리 교회의 방식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읽어 내는 데에 어떠한 수단이 도움이 되는가?

자문을 구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31. 시노드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의 목적은 폭넓은 자문을 구하는 과정을 증진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 다른 양상과 측면들 안에서 실천된 시노달리타스로 쌓인 풍요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이때, 모두 다른 차원들에 있는 개별 교회들의 목자들과 신자들을 구체적인 지역 현실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통하여 포함한다. 곧 자문은 주교의 주재 아래에서 “자기 교회의 신부, 부제, 평신도에게 개별적으로 또 그 연합회들에게”도 향한다. “이때 남녀 축성 생활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소중한 기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주교들의 친교』, 7항). 개별 교회들의 참여 기구들, 특히 사제 평의회와 사목 평의회 의견이 특별히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가 형태를 [참으로] 취하기 시작할 수 있다.”²² 이와 더불어 이 「예비 문서」가 전달될 다른 교회 기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직접 제출될 의견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별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책임을 맡은 이들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가 그 자리를 찾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32. 이 경청과 식별의 과정의 끝에 각 개별 교회가 공동으로 작성할 종합은 보편 교회의 여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여정의 이어지는 단계들을 더 쉽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기도와 성찰의 결실들을 최대 열 장 이내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그것들의 맥락을 잘 잡고 설명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보완하거나 통합하는 다른 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시노드의 목적을 상기하면, 이번 자문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꿈을 심고 예언과 전망을 이루어 내며 희망이 꽃피게 하고 신뢰를 불어넣으며 상처를 감싸 매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내며 희망의 서광을 깨우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또한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따듯하게 하며 우리의 손에 힘을 주는 빛나는 지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²³

22. 주교대의원회의 제정 50주년 기념 연설.

23. 프란치스코, 젊은이에 관한 주교대의원회의 개막 연설, 2018.10.3.

... 시노드의 목적을 상기하면,
이번 자문은
문서를 작성하는 일이 아니라,
“꿈을 심고 예언과 전망을 이루어 내며
희망이 꽃피게 하고 신뢰를 불어넣으며
상처를 감싸 매고 함께 관계를 만들어 내며
희망의 서광을 깨우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다.
또한 정신을 일깨우고
마음을 따듯하게 하며
우리의 손에 힘을 주는
빛나는 지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주교대의원회의



세계주교시노드
2021
2023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 교 이 참 여 이 사 명



주교대의원회의